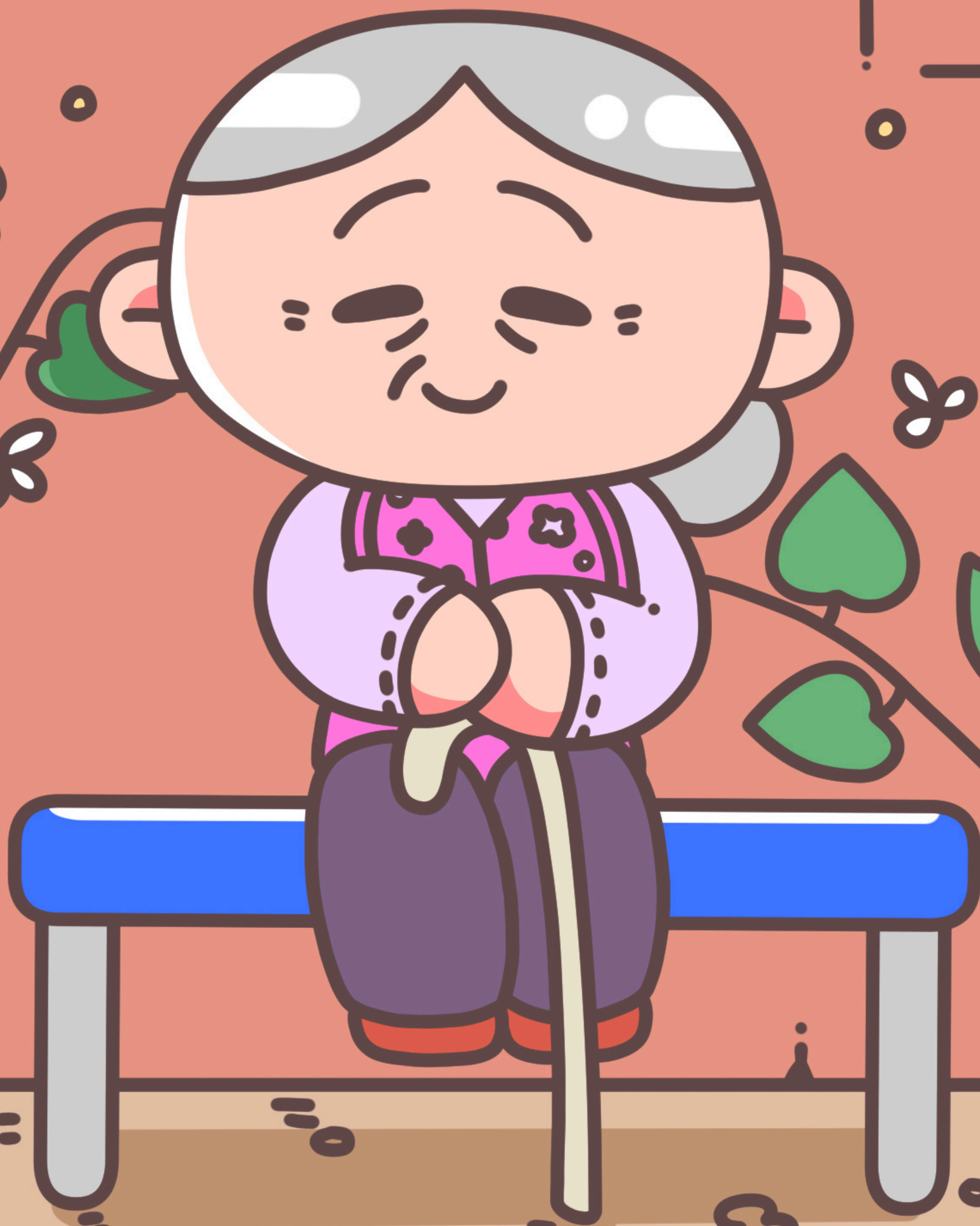


말기환자



어릴 적, 우리 동네에는 '딸기 할머니'가 있었습니다.

안녕하세요 할머니!

BUS

그려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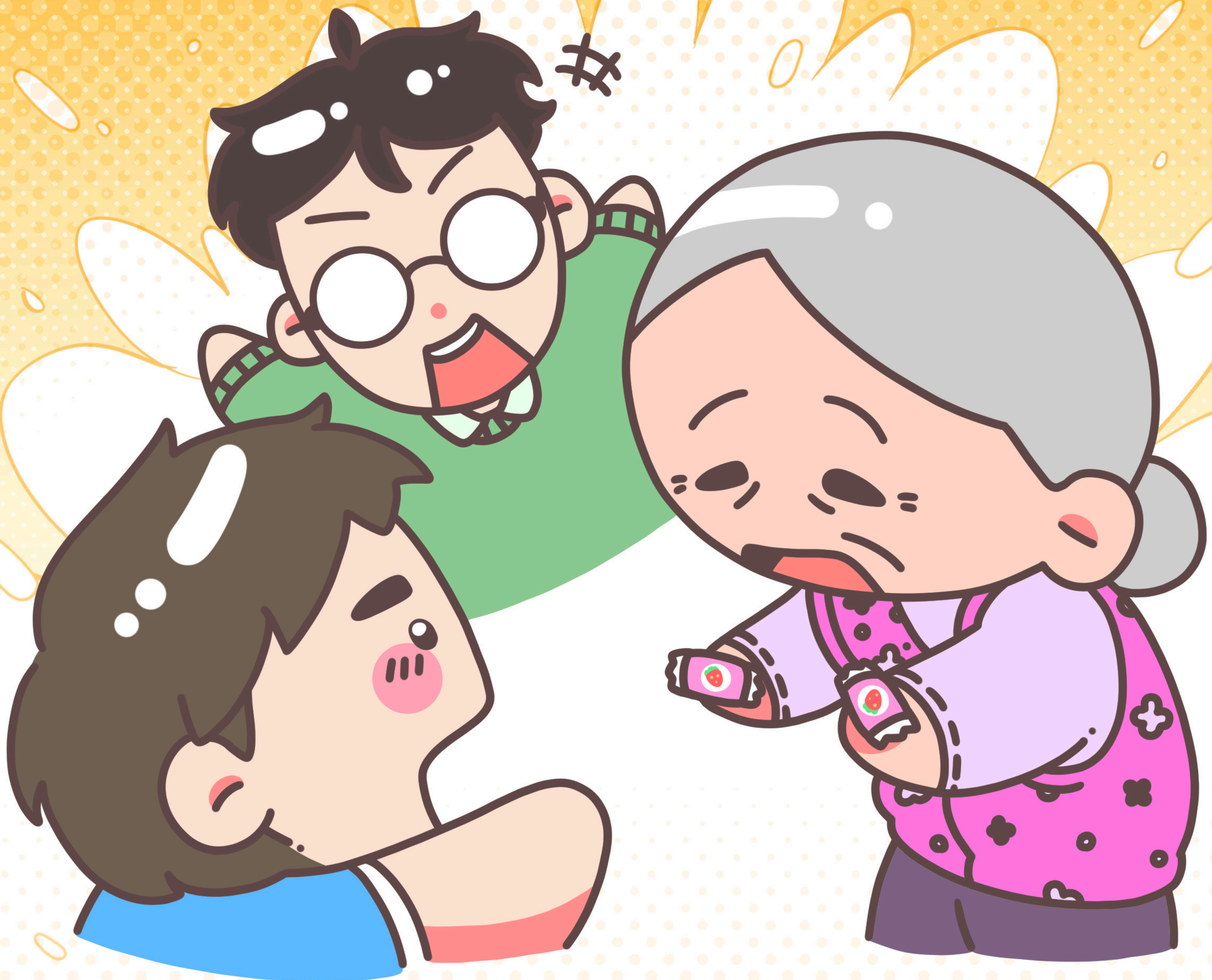
딸기 할머니는 언제나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었죠.

계절이 바뀌어도, 눈이 오나 비가 오나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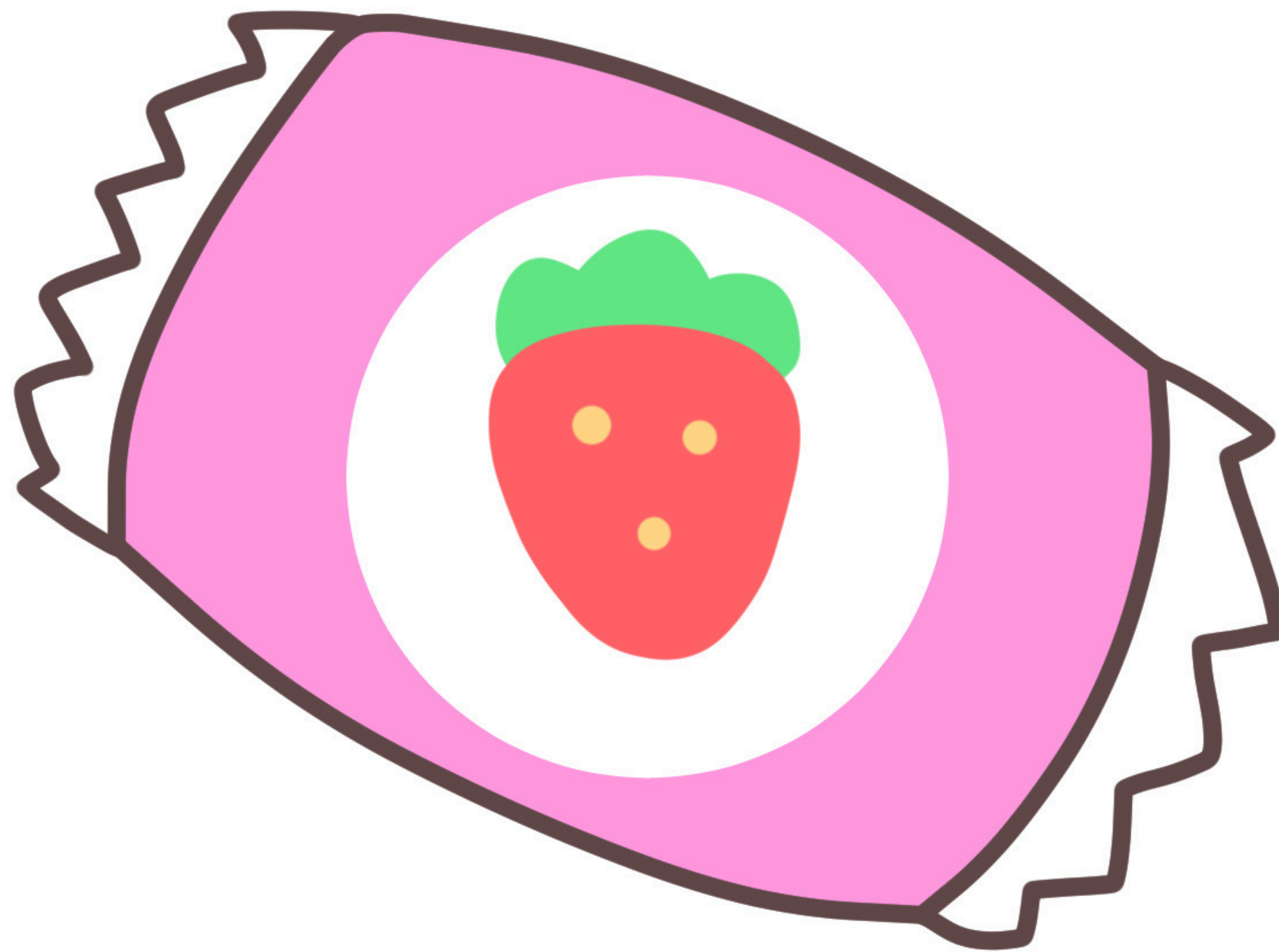
딸기 할머니는 항상 정류장을 지켰습니다.

그런 딸기 할머니가 일어나실 때는,



우리에게 사탕을 주실 때였습니다.

저는 그 딸기 사탕이 정말 좋았지만,



딸기 할머니는 언제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.

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.

더 해주지 못해서
내가 항상 미안혀...

항상 웃으시던 딸기 할머니가
왜 울상을 지으시는지,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.

우리 아들,
딸기 먹고 싶었을텐데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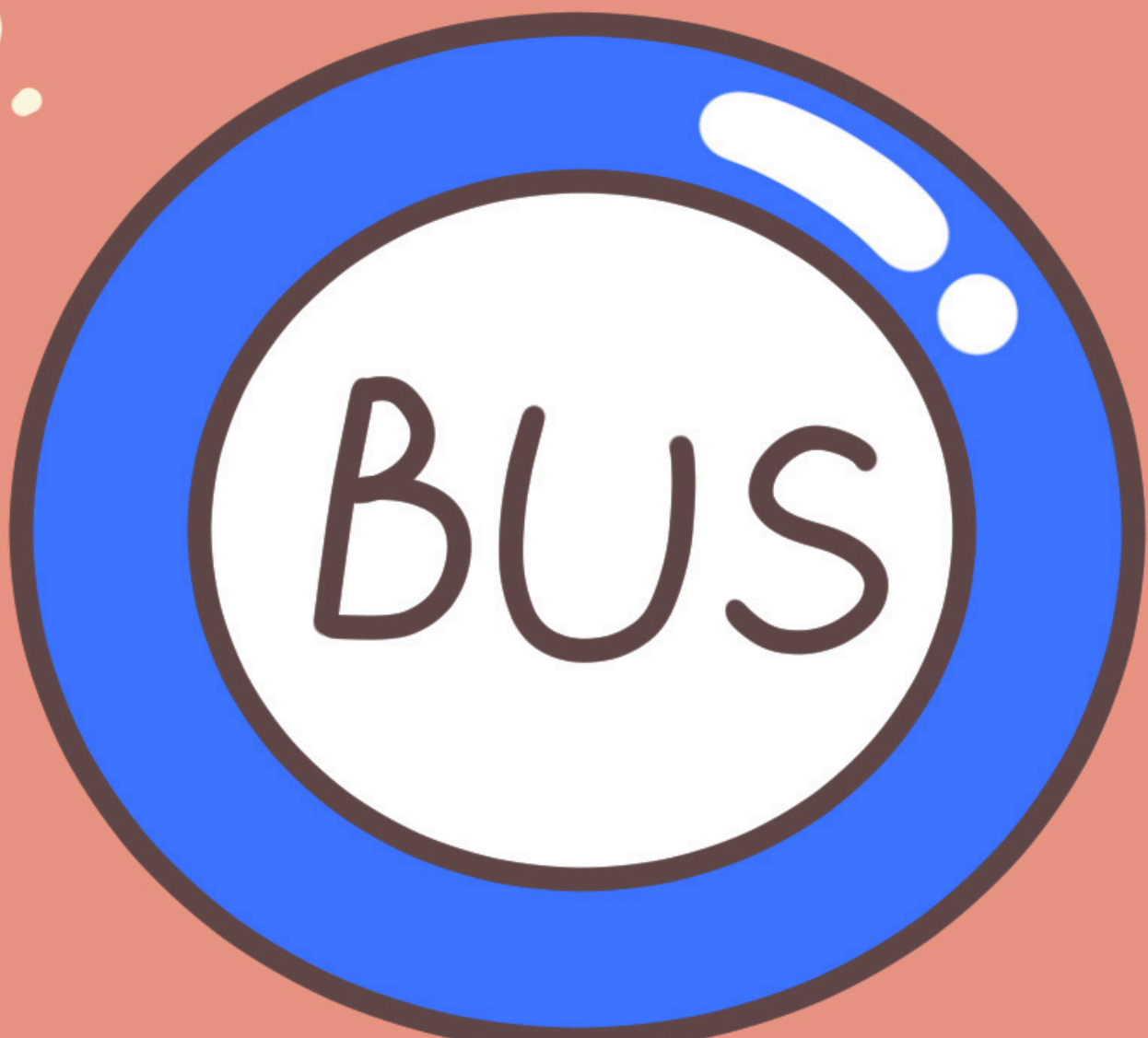
나는 딸기 사탕이
제일 좋아, 괜찮아!

어머니, 이 버스를 타고
남쪽으로 가세요.

저도 곧 따라갈게요.







“아가, 우리 꼭
다시 만나자.”



딸기 할머니는 오늘도 버스 정류장에 계십니다.